

광주어머니회 '바롭상'  
차종순 호남신학대 총장



## "양립동 선교사들의 봉사·희생 이젠 우리의 뜻"

12일 대한어머니회 광주연합회(회장 문진수)의 '바롭상'을 수상한 차종순(64) 호남신학대 총장은 "상 이를 그대로 바른 생각과 행동으로 살이 왔다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어서 값지고 기쁘다"고 말했다.

차 총장은 근래 문화유산이자 호남 선교의 중심지인 광주 양립동 선교동 산을 발굴해 역사문화마을 관광자원화 사업에 기여하고, 광주 YMCA 설립자인 오방 최희종 목사에 관한 연구 등 지역 기독교사 연구에 힘쓴 공적으로 이번 상을 수상하게 됐다.

'바롭상'은 대한어머니회 설립자인 고황경(서울여대 설립자) 박사의 아호를 따 제정한 상으로 바른 생각

과 행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한 사람에게 주는 상이다.

"선교사들이 양립동에서 선교활동을 했지만 단순히 선교에만 머무르지 않고 교육·의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근래 문명이 전해진 곳이라고 할 수 있죠."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양립동 알리기에 나섰다는 차 총장은 일제 강점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근대 여성인물사를 평가 있는 역사학자이기도 하다.

특히 전라도 지역의 선교사를 이야기할 때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며 이런 관심이 양립동 일대 역사문화

마을 조성사업에 관여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차 총장은 또 "기독교가 지역사회로부터 멀어지고 있고 각종 비리와 폐해의 원인이 되고 있는 점이 안타깝다"며 선배들의 '사회봉사적 복음주의' 정신을 본받아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교가 사회의 빛과 소금 역할을 해야한다는 신념을 실천으로 옮겨야 하며 지역사회로부터 인정 받는 도덕적 삶의 표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차 총장은 목사이면서도 운동, 음악, 차(茶) 등을 즐기는 만능 문화예술인이다. 글 쓰기를 좋아하고 2009

년에는 그동안 찍은 사진을 모아 전시회를 갖기도 했다.

차 총장은 "총장 임기가 끝나고 정년하게 되면 작은 교회를 맡아 사목 활동을 할 계획이며 기독교를 모르는 중국 같은 곳을 찾아 선교활동을 펼치고 싶다"고 말했다.

'광주 토박이' 차 총장은 광주 살레 시오 고등학교와 전남대 철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프린스턴 신학대학원 대학원에서 신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광주영어방송청취자위원회 위원장, 전국신학대학협의회 회장 등을 맡고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사진=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월드캠프 청소년 페스티벌 3500여명 성황

세계 60여개국 3500여명 대학생들이 축제 한마당인 '2011 월드캠프 청소년 페스티벌'이 지난 10일 광주 엠주체 육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국제청소년연합(회장 도기원·IYF)이 주최한 이날 행사는 캐나다의 오투마 폴 네게사 장관, 중앙 아프리카공화국의 보카사 장 세르지 장관 등 17개국 청소년부 장·차관과 김재균 국회의원, 강운태 광주시장, 윤봉근 광주시의회 의장, 최희 아시아문화 중심도시조성위원장 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또 페어스 페인팅, 메이크업, 크로커 등 각 부스별로 다양한 행사들이 진행됐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 뇌사 10대, 6명에 새로운 삶 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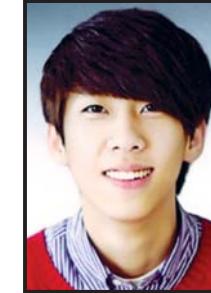
### 주대철군 부모, 아들 장기 기증 결정

뇌사상태에 빠진 10대 청소년이 장기 기증해 6명의 환자들에게 새 생명을 나눠주고 하늘나라로 떠났다.

12일 조선대병원(병원장 김만우)에 따르면 주대철(17·광주시 광산구 신가동)군은 지난 3일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교통사고가 났다.

사고 직후 조선대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머리를 심하게 다쳐 중태에 빠졌다. 결국 사고 6일 만인 지난 9일 오전 뇌사 판정을 받았다.

고등학교 경고점수를 준비하고 있던 아들의 뇌사 소식을 들은 부모들은 절망에 빠졌다. 애지중지 키운



들은 조선대 병원과 삼성서울병원·충남대 학교병원·전북대학교 병원으로 보내져 이식이 필요

한 환자들에게 전해졌다.

조선대병원 장기이식센터 장은하 코디네이터는 "지난해 장기기증을 기다리는 대기자는 1만7000여 명에 이르지만 기증자는 261명에 불과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장기기증이 더욱 활발히 이뤄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

### '중국댁' 김영옥 해경, 경장으로 특진



중국에서 이주해 해양경찰이 된 여성이 특별 승진했다.

주인공은 지난 2009년 7월 해양경찰 중국어 특수경으로 임용돼 현재 목포해경 대형 함정 3009함에 승선하고 있는 '중국댁' 김영옥(34) 순경.

목포해경은 2011년 해양경찰 상반기 특별 승진에 중국어 선경과 실적 등 현장 업무에 공적이 뛰어난 김 순경을 경장으로 특진시켰다고 12일 밝혔다.

김 경장은 작년 한 해에 불법조업 중국어선 검문검색 현장 겸색 통역요원으로 중국어선 30척에 350명을 검거하는데 공을 세웠다.

특별 승진의 영예를 안은 그는 '액체 중국댁'으로도 유명하다. 중국에서 해남으로 시집온 지 9년 만에 물설고 낳은 한국에서 해남 문화관광해설사로 활동했는가 하면, 중국어 실력을 살려 대불대 중국어과에 편입해 당당히 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기도 한 1남 1녀의 억척 아줌마다.

/서부취재본부=김병관기자 dss611@

## 화순중 학생들 꽃동네 연수원서 봉사활동

화순중학교 2학년 학생들은 최근 2박3일 일정으로 충북 음성 꽃동네 사랑의 연수원에서 봉사활동을 했다.



학생들은 희망의 집, 천사의 집, 애덕의 집, 자애병원 등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청소, 빨래, 음식 수발, 아기 돌보기, 목욕 등의 봉사활동을 했다. 또 장애체험, 행복한 가정 만들기 체험, 새로운 탄생, 아름다운 세상 등을 통해 남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마음가짐 등을 배웠다.

2학년 송재민 학생은 "처음에는 신체 구조가 다른 사람들에게 선뜻 다가가기 어렵겠지만 곧 그 생각에 부끄러움

을 느꼈다"며 "자신을 이렇게 건강하게 낳아주신 부모님께 감사와 더불어 가정의 소중함도 느꼈다"고 말했다.

노재찬 교장은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식을 기르고, 자신과 가족의 소중함을 뒤틀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꽃동네 봉사활동을 기획했다"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정운수기자 unsu@

## 조선대 국제봉사단 캄보디아 의료봉사

조선대 학생들이 캄보디아에서 국제봉사활동을 펼친다. 학생 15명과 조선대병원 의사 1명으로 구성된 캄보디아 국제봉사단은 13일부터 22일까지 캄보디아 프놈펜과 캄퐁թ陂에서 봉사활동을 한다.

봉사단은 현지에서 주민 500여명을 대상으로 의료봉사를 실시하고 이발과 네일아트, 풍선아트, 페이스 프린팅 등의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또 캄보디아 봉사교육 단체인 L-CDI 소속 대학생 및 고등학생 약 200명을 대상으로 한국노래 교실, 댄스교실, 비즈, 종이접기, 마술 공연을 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채희종기자 chae@



중국에서 이주해 해양경찰이 된 여성이 특별 승진했다.

주인공은 지난 2009년 7월 해양경찰 중국어 특수경으로 임용돼 현재 목포해경 대형 함정 3009함에 승선하고 있는 '중국댁' 김영옥(34) 순경.

목포해경은 2011년 해양경찰 상반기 특별 승진에 중국어 선경과 실적 등 현장 업무에 공적이 뛰어난 김 순경을 경장으로 특진시켰다고 12일 밝혔다.

김 경장은 작년 한 해에 불법조업 중국어선 검문검색 현장 겸색 통역요원으로 중국어선 30척에 350명을 검거하는데 공을 세웠다.

특별 승진의 영예를 안은 그는 '액체 중국댁'으로도 유명하다. 중국에서 해남으로 시집온 지 9년 만에 물설고 낳은 한국에서 해남 문화관광해설사로 활동했는가 하면, 중국어 실력을 살려 대불대 중국어과에 편입해 당당히 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기도 한 1남 1녀의 억척 아줌마다.

/서부취재본부=김병관기자 dss611@

##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 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28 FAX. 062-222-4938, 222-4918

## 화족

▲조병제·김수지씨 장남 민철군 김경원(전 광주지검 사건과장)·문정실씨 차녀 세하양=16일(토) 오후 1시 서울 명동 대성당.

## 동창·동문회

▲제19차 ROTC 광주전남 총동 우회 정기총회=15일(금) 오후 6시 30분 포에버 리더스 클럽(금남로 5가 교보빌딩 10층) 062-529-2944.

## 종친회

▲문화류씨회정공파 광주종친회(회장 류수택)=14일(목) 오후 6시 30분 종가집 보쌈 062-681-3033.

## 모집

▲제3기 여성장애인 성폭력 전문 상담원 교육=장애인 당사자, 사회복지 및 상담 실무자, 여성장애인 성폭력 문제에 관심이 있는 자. 교육비는 비장애인 10만원, 장애인 5만원. 접수기간 15일(금)까지 (사)광주여성장애인연대 종합지원센터 062-654-1366.

▲아이가 입양가기 전까지 사랑으로 양육해주실 위탁모=25~55세 이하로 막내가 초등학생 이상이라면 신청 가능. 소정의 양육비 및 교통비 지급, 양육물품 일체 지급. 광주시 동구, 남구, 북구 거주자에 한함. 흘아트동복지회 광주아동상담소 062-227-8877.

▲비단항꽃무=천연수제샴푸, 탈모, 비듬, 두피가려움증, 아토피, 여

교육원(수요일 오전 10~12시, 오후 7~9시), 조선대 062-230-7700), 호남대 062-370-8211.

▲나주 이동기족상담센터 대상자=미술미묘·언어치료, 전화·내방 접수 가능. 비용 1만8000원. 061-332-8991~2.

▲허브다이어트·주열 회원=복부민·근육유지·체질개선·미쓰이식주엽요법·암세포사멸·면역력상승·자율신경질조증·알레르기증상 개선·남녀노소 누구나 가능. 070-8780-5901.

▲길라잡이 프로그램=(베이비)마사지, 요리만들기, 육아용품 만들기, 육아상식교育, 자조모임 등). 결혼이주여성 한글교실(초·중급반) 한국어 교육) 회원 모집 062-267-3700.

▲엔자임 코리아 주식회사 관리자=화장품 동종업체 경력자 우대 062-524-0388.

▲성모사랑 노인방문요양 센터=고령, 노인성질환(치매·중증·노환), 취사, 청소 가사지원. 신체활동지원 방문목욕, 기타 돌봄서비스 등 대상

자 및 요양보호사 모집. 야간 및 휴일 상담 가능 062-385-3678.

▲충만재기복지센터=방문요양·방문목욕·복지용구상당·노인복지 상담 일반가족 회원가입 상담 062-942-9982.

▲오토 배드민턴 클럽 회원=오후 7시30분~10시 30분까지 우산중학교 체육관 010-3624-2141.

▲문정 배드민턴 클럽 회원=오후 7시30분~10시 30분까지 문산초·중학교 체육관 010-3624-2141.

▲풋골프 회원모집 및 친선경기 주정원 선발=발로 볼을 차 흘리는 풋골프 회원 모집, 매주 토·일요일 오전 9시30분부터 광주첨단교통공원 뒤 풋골프장 010-4604-4608.

▲김천례씨 별세 노기진·기호·기 전·신자씨 모친상=발인 13일(수) 무등장례식장 102호 062-515-4488.  
▲장지홍씨 별세 상근·후근·영근·광숙씨 부친상=발인 13일(수) 무등장례식장 201호 062-515-4488.

▲김천례씨 별세 노기진·기호·기 전·신자씨 모친상=발인 13일(수)

무등장례식장 102호 062-515-4488.

▲장지홍씨 별세 상근·후근·영

근·광숙씨 부친상=발인 13일(수)

무등장례식장 201호 062-515-4488.

▲김천례씨 별세 노기진·기호·기

전·신자씨 모친상=발인 13일(수)